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백신에 따른 경제 효과, 신형시장에겐 아직 먼 얘기
- ◇ (칼럼)-악마는 디테일에..시나리오 전망에 담긴 한은의 정상화 스탠스
- ◇ (초점)-11 월 외인 주식 매수 '역대급'..지속성과 변수 점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 추수감사절 기간 집에 머물라는 당국의 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덴버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로 포옹하고 있다. (로이터/케빈 모하트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27일 종가 기준)

| 원화 % | 최종 | 주간(%) | YTD(%) | 2019(%) | 달러 대비 % | 최종 | 주간(%) | YTD(%) | 2019(%) |
|---------|----------|--------|---------|----------|------------|-----------|--------|----------|----------|
| 달러 대비 | 1,103.2 | 1.0% | 4.8% | -3.5% | 유로 | 1.1962 | 0.9% | 6.7% | -2.3% |
| 100엔 대비 | 1,060.6 | 1.2% | 0.2% | -4.4% | 엔 | 104.10 | -0.2% | 4.3% | 0.9% |
| 유로 대비 | 1,321.1 | 0.0% | -2.1% | -1.3% | 위안 | 6.5741 | 0.1% | 5.9% | -1.3% |
| 위안 대비 | 167.85 | 1.2% | -1.3% | -2.4% | 해외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19(%) |
| 한국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19(%) | 다우존스 | 29,910.37 | 2.2% | 4.8% | 22.3% |
| 코스피 | 2,633.45 | 3.1% | 19.8% | 7.7% | 나스닥 | 12,205.85 | 3.0% | 36.0% | 35.2% |
| 코스닥 | 885.56 | 1.8% | 32.2% | -0.9% | S&P500 | 3,638.35 | 2.3% | 12.6% | 28.9% |
| 국내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19(bp) | MSCI APxJP | 635.20 | 1.6% | 14.9% | 15.8% |
| 국고채 3Y | 0.979% | 1.6bp | -38.1bp | -45.7bp | 미국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19(bp) |
| 국고채 5Y | 1.324% | 2.5bp | -15.6bp | -40.4bp | 미국채 2Y | 0.154% | -0.7bp | -140.7bp | -93.7bp |
| 국고채10Y | 1.641% | 3.4bp | -4.2bp | -26.5bp | 미국채 10Y | 0.842% | 1.8bp | -106.8bp | -78.1bp |
| 국제상품가격 | 최종 | 주간(%) | YTD(%) | 2019(%) | CDS프리미엄 | 최종(bp) | 주간(bp) | YTD(bp) | 2019(bp) |
| 유가(WTI) | 45.53 | 7.3% | -25.4% | 34.5% | 한국 5Y | 20.8bp | -0.7bp | -0.3bp | -17.0bp |
| 금(현물) | 1,788.13 | -4.4% | 17.9% | 18.3% | 일본 5Y | 15.1bp | 0.2bp | -2.7bp | -4.0bp |
| TR상품지수 | 2,725.10 | -0.1% | 9.6% | 4.8% | 중국 5Y | 29.6bp | -2.5bp | -1.1bp | -35.8bp |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1월 30일(월)>

- 금감원, 10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 (06:00)
-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08:00)
- KDI, 북한경제 리뷰 11월호(12:00)
-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14:00)

<12월 1일(화)>

- 한은, 3분기 국민소득(잠정)(08:00)
- 산업부, 11월 수출입 동향(09:00)
- OECD 세계 경제 전망 발표

<2일(수)>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금감원, 3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06:00)
-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운영현황 및 안내사항(12:00)
- 한은, 3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12:00)
-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3일(목)>

- 기재부, 혁신성장전략회의(08:00)
- 한은, 11월말 외환보유액(06:00)
- 통계청, 10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4일(금)>

- 한은, 10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재부,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14: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1월 30일(월)>

- 일본, 10월 산업생산 잠정치 · 소매판매 (08:50)
- 중국, 11월 제조업 · 서비스업 PMI (10:00)
- 미국, 11월 시카고 PMI (23:45)
- 미국, 10월 잠정주택 판매 (자정)

<12월 1일(화)>

- 일본, 10월 실업률 (08:30)
- 일본, 3분기 기업설비투자 (08:50)
- 일본, 11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중국,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 (10:45)
-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 (12:30)
- 유로존, 11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 (18:00)
-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지수 NSA (19:00)
- 미국, 11월 마켓 제조업 PMI 최종 (23:45)
- 미국, 10월 건설지출 (자정)
- 미국, 11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PMI (자정)
-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상원 은행위 원회 증언 (자정)

<2일(수)>

- 유로존, 10월 생산자물가 · 생산률 (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1월 ADP 전국 고용동향 (22:15)
-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뉴욕지수 (23:45)

<3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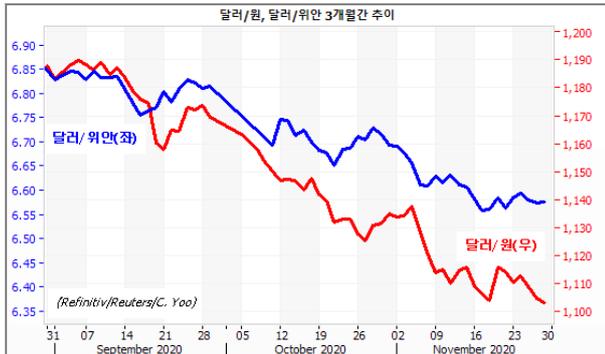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04:00)
- 중국, 1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최종 (10:45)
- 유로존, 11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 (18:00)
- 유로존, 10월 소매판매 (19:00)
- 미국, 11월 챌린저 해고건수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1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 (23:45)
- 미국, 11월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자정)

<4일(금)>

- 미국, 11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 실업률 (22: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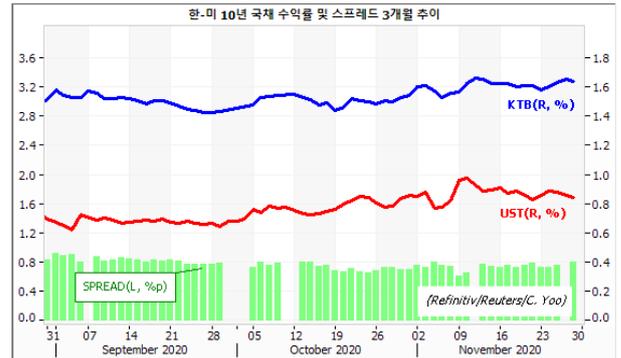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 증시와 수급 동향을 살피면서 바로 눈앞에 놓인 1100 원 선 하향 이탈 시도에 나설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090-1110 원이다.
- 정신없이 추락했던 환율은 최근 2 주 동안 당국과 대처하면서 하락 속도를 조절해왔다.
- 그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린 심리는 어느 정도 조정됐다 하더라도 수급의 무게추는 더욱더 아래쪽으로 기울었다. 지난주에만 외국인들은 유가증권시장 기준으로 2 조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고, 조선사들의 대규모 수주까지 더해져 달러 매물 압박은 거세졌다.
- 국내 코로나 19 재검증 추세에도 백신 기대감이 관련 우려를 상쇄하는 데다 주말 사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 단계로 유지하면서 코로나 재료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상할 여지는 줄었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환율 움직임은 커질 수 있겠다.
- 국내외 제조업 PMI, 10 월 국내 산업활동동향, 11 월 수출과 소비자물가, 11 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등의 발표가 대기하고 있다. 또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도 예정돼 있다.
- 위안/원 환율 급락세가 나타나지 않은 선에서 국내 지표 호조와 지금과 같은 무거운 수급 여건이 확인된다면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이 1100 원 선을 하향 이탈한다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아 보인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주초 국고채 3 년물, 30 년물 입찰과 3 차 재난지원금 논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 등을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이번 주초 국고채 3 년물과 30 년물 입찰을 전후로 매수 타이밍을 조율하는 기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다만 주초에는 국회와 정부의 3 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영향으로 추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상황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 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 경우 내년 목적 예비비가 2 조원 안팎 증액될 수 있고 그만큼 국채 발행액이 늘 수 있다.
- 다만 시장이 이미 170 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변화는 심리적인 영향 이상은 아닐 것이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분석이긴 하다.
-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 참가자들이 매수 시그널에 좀 더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 주말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 등이 정책 지원 축소,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부진할 수 있다는 점, 글로벌 주가가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등도 채권 등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통계청은 30 일 10 월 산업활동동향, 다음달 2 일에는 11 월 소비자물가를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1 일 3 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고 4 일에는 10 월 국제수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1 일 11 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초점)-백신에 따른 경제 효과, 신흥시장에겐 아직 먼 얘기

런던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이 곧 널리 배포될 것이라는 전망에 신흥시장이 강세를 보여왔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일부 국가에서 백신 출시가 늦어질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랠리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생산되는 백신을 포함, 많은 백신들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백신 구입에 대한 예산상 제약과 저장 및 유통 관련 문제는 많은 신흥국들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는 백신 출시에 따른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 신흥국에서는 백신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한다.

또한 인도와 같은 경제 대국의 일부 교외 지역이나 가난한 국가의 백신 수송 관련 물류상의 문제 역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신흥시장은 지난 2월과 3월의 판데믹 기간 동안에는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는 다시 되살아났다. 이달 18일까지 한 주 동안 신흥시장 채권으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MSCI의 신흥시장 주가지수와 통화지수는 각각 34개월래 최고치, 30개월래 최고치에 육박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의 백신 접종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자산운용사인 토밤의 타자나 푸한 매니징 디렉터는 "만약 신흥국들의 인구 과반수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부분적 외출제한 조치가 계속 필요할 것이고 여행 활동이 제한되면서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 반영한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운송 문제

저렴하면서 일반적인 냉장 온도에서도 운반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장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도이치은행은 리서치 노트를 통해 신흥국 중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신을 안정적인 온도로 보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한 예로 인도는 백신 운송을 위한 냉장 시설 및 운송 트럭을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13억 8,000만 인구에게 접종할 충분한 양의 백신을 초저온 상태로 빠르게 수송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한 전문가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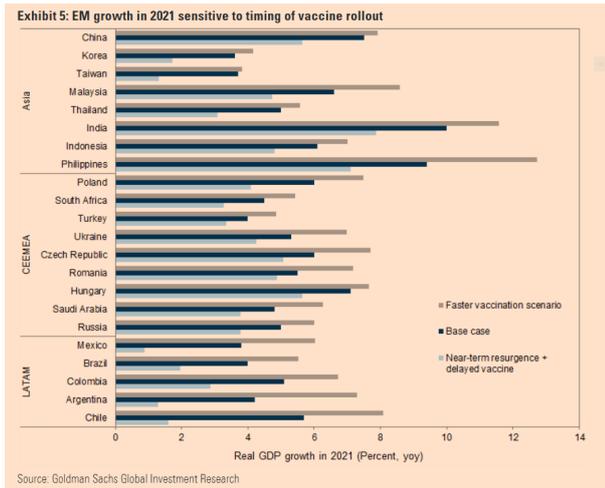
신흥시장 중 자국산 백신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의 백신 일부를 다른 국가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일부 빈곤한 신흥국가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이끌고 있는 백신 공동 구매 및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백신에 따른 긍정적인 시장 효과는 신흥국에서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씨티 애널리스트들은 2021년까지 대부분 신흥국의 백신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선진국이 2021년 4분기쯤 백신에 따른 경제 성장을 경험하는 것과 달리 신흥국은 2022년 상반기가 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골드만삭스의 베이스 시나리오에 따르면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신흥시장의 경우 2021년 말에서 2022년 중반, 백신 공급이 빨리 이뤄지는 국가와 선진국들은 그보다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칼럼)-악마는 디테일에..시나리오 전망에 담긴 한은의 정상화 스탠스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은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매파적인 중앙은행 중 하나라는 평가는 어제오늘 나온 것은 아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나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처럼 최소 3년간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고 공표해 주길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이 총재의 발언에서 시장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가이드라인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낼 때까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는 정도다.

▲정책 정상화 시점 '가이드라인'과 한은 경제 전망

이 총재가 완화적 통화정책의 시한을 구체적으로 밝힌 게 아니다 보니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은 시장의 몫이다.

물론 이 총재가 개념 정의를 해주긴 했다.

이 총재 역시 지난 10월 통화정책 기자간담회 당시부터 정책 정상화의 전제로 제시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표현의 정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당시 이 총재는 "코로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한두 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2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10월 발언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금은 통화정책을 변경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두 번이나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백신의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전 세계 주요국 증시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가운데 26일 한은이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은 코로나 19 발원화 정책의 정상화 시점에 대한 열린 해석을 가능하게 할 듯하다.

한은은 최근의 코로나 19 재확산이 옮겨올 중에만 지속되고 이후 국지적으로만 확산되는 기본 시나리오를 토대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 내년 전망치를 3.0%로 조정했다. 지난 8월 전망치보다 각각 0.2%p씩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 눈에 띈 것은 낙관, 비관 시나리오다.

한은은 최근의 코로나 19 재확산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진정될 경우 내년 경제 성장률이 3.8%까지 오르고 2022년에도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코로나 19 재확산 흐름이 더디게 진정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선 내년 성장률이 2.2%에 머물고, 2022년에도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 8월에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는 낙관 시나리오에서 국내 경제가 내년에 3.4% 성장할 것으로 봤고, 비관 시나리오에서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번 전망에서는 낙관 시나리오상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4%p, 비관 시나리오상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p나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지난 5월 처음으로 시나리오 경제 전망을 내놓은 한은은 처음엔 코로나 19 확진자 수로 경제 봉쇄조치의 강도를 가능했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늘수록 경제 봉쇄의 강도가 커지고 확진자 수가 줄면 경

제 봉쇄 강도도 약해지는 모델로 전망치를 뽑아낸 것이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19 확산이 경제봉쇄 조치의 강도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은 역시 매개변수를 조정하며 경제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 이번과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번 코로나 19 재확산이 비관적 시나리오로 흘러간다 해도 내년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경로보다 크게 후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는 한은의 판단이 담겨 있는 결과다.

▲코로나 19 불확실성 감소와 금융 불균형 문제의 식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이번 한은의 시나리오에는 코로나 19 백신의 상용화라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반영돼 있음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선진국의 경우 내년 초반부터 코로나 19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의 경우 내년 중반경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전망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향후 코로나 19 백신의 안정성 문제나 유통상의 어려움이 부각될 경우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총재가 밝힌 가이드라인대로 해석해 봤을 때 국내 통화당국이 내년 이후 정책 정상화의 발동을 걸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이다.

한은의 전망 모델이 경기 하방 위험을 이전보다 크게 낮춘 상황에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금통위의 문제의식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듯하다.

금통위는 이번 통화정책 방향 성명에서 "가계부채 증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8월과 달리 성명에 "금융안정 상황"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한국은행의 우려가 반영된 조치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날 기자간담회 말미에 한 기자가 이 변화를 두고 통화정책 방향 전환의 시그널인지 물은 데 대해 이 총재는 스쳐지나가듯 이같이 말했다.

"오늘 성명이나 모두발언, 기자간담회 답변 내용을 모두 들어보면 (통화정책의) 무게가 옮겨왔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저) 금융 불균형을 같이 우려할 단계가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 통화당국의 스탠스는 이전과는 다른 단계로 넘어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매파적인 중앙은행, 맞다.

(초점)-11 월 외인 주식 매수 '역대급'..지속성과 변수 점검

서울 (로이터) 이지훈 기자 - 이달 서울 유가증권시장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사상 최대급 규모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화려한 귀환을 신고한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들은 일단 내년까지 외인 매수 지속을 가리키고 있다.

이달 들어 27 일 오후 2 시 30 분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4 조원어치를 순매수했고, 30 일 변동률 고려해도 월간 순매수는 1999 년 통계 공표 시작 이래 최대치를 경신하거나 근접할 듯하다.

이러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이달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다. 코스피는 11 월 들어 현재까지 16.0% 상승했고, 2001 년 11 월(19.7%)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을 눈앞에 뒀다.

미국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백신 개발 진전 소식이 세계 경제 정상화를 현실로 만들면서 반도체 업종 등 한국 경제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달러 약세 환경도 신흥국 주가의 매력을 키웠다.

분류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많은 투자은행은 여전히 한국을 신흥국으로 분류하지만, 국내 제약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신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수용도 등을 바탕으로 한국은 코로나 19 백신이 공급될 시 선진국들만큼 빠른 정상화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평가 속에 MSCI 한국 지수는 이달 25 일 마감 기준으로 월간 18.2% 상승하면서 신흥국 지수 (10.9%)와 대만 지수(10.5%)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달 MSCI 한국 지수는 2011년 10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달러 약세 + 반도체 호조

이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수 열풍에는 달러 약세와 반도체 업황 및 전망 호조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달러/원 환율은 이달 들어 2.7% 하락하면서 달러 지수(2.2%)는 물론, 역외 기준 달러/위안 환율 (1.9%)보다도 빠르게 하락했다.

내년 반도체 업황이 '업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수출 개선세도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10월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데 이어 이달 20일까지 21.9% 증가하면서 한국 수출 개선세를 주도하고 있다.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지만, 이 또한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호재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씨티은행은 이달 배포한 한국 경제 및 주식 관련 보고서에서 "화웨이 해외 시장 점유분의 최대 44%까지 삼성전자가 차지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등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첫 번째 선호 종목으로 제시했다.

◆ 달라진 외국인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넘어 2차전지와 인터넷 등 소위 신산업 종목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달 26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2.3조원), LG화학(1.5조원), SK하이닉스(1조원), 삼성SDI(4천억원), 카카오(3천억원) 등이다.

이들 5개 종목을 시가총액은 코스피 전체의 34%인데 유가증권시장 전체 외국인 순매수 규모의 75%가 이들 종목에 몰리면서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다만, 지난 7월 달러 지수가 4% 급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 일시적으로 복귀했을 때와는 달라진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는 2.7조원으로 월간 전체 순매수 (1.1조원)의 2.5배를 차지했다.

노무라는 이달 배포한 주식 전략 보고서에서 내년 말 코스피 전망을 현재보다 8-9% 높은 2850 포인트로 제시하면서 그 첫째 이유로 "4차 산업혁명(반도체, 인터넷 등), 친환경(전기차, 배터리 등),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지속 가능한 고성장 섹터"를 꼽았다.

◆ "더 들어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에 따른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선호도가 차별화된 '펀더멘털'에 기인한다면 이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다수 국가의 기업 이익 전망치가 연초 대비 10-20% 미달한 반면, 국내 기업 이익 전망치는 연초 대비 '플러스' 전환을 이미 이룬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의미한 코로나 19 통제를 이뤄낸 동북아시아 시장에 긍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 지수 구성 종목의 상당수가 수출 제조업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도 코로나 19 이후 회복기에 유리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위원도 "국내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은 올해 28%, 내년 45%가 예상되는데 2년 연속 증가를 이어가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밖에 없고, 모멘텀을 강화해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성장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국인은 이달 대규모 순매수에도 연간 기준으로는 27일 오후 2시 30분 현재 누적 20.4조원 순매도를 기록해 시가총액 보유 비중이 연초 38.2%에서 36.2%까지 낮아져 있다. 기술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될 여지는 있다는 뜻이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외국인 지분율은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했고, 현재 지분율(36%)은 추세선(37.4%)을 하회한다"면서 "추세선 수준의 지분율 회복을 가정하면 외국인은 (23일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25조원 정도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 변수는 있다

다만, 이 전망은 내년 코로나 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기 회복에도 주요국 정책 당국의 유동성 회수 조짐 없이 전반적인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

전 세계 주가가 급등하면서 '과열' 경고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책 당국자들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주가 과열 현상이 부동산 등 다른 자산 가격 과열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킬 경우 완화 정책 축소 움직임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을 겪고 있는 국내에서도 이미 정책 정상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통화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주가 과열을 단언하긴 어렵지만, 유동 자금이 증시로 많이 쏠리고 있어 조정시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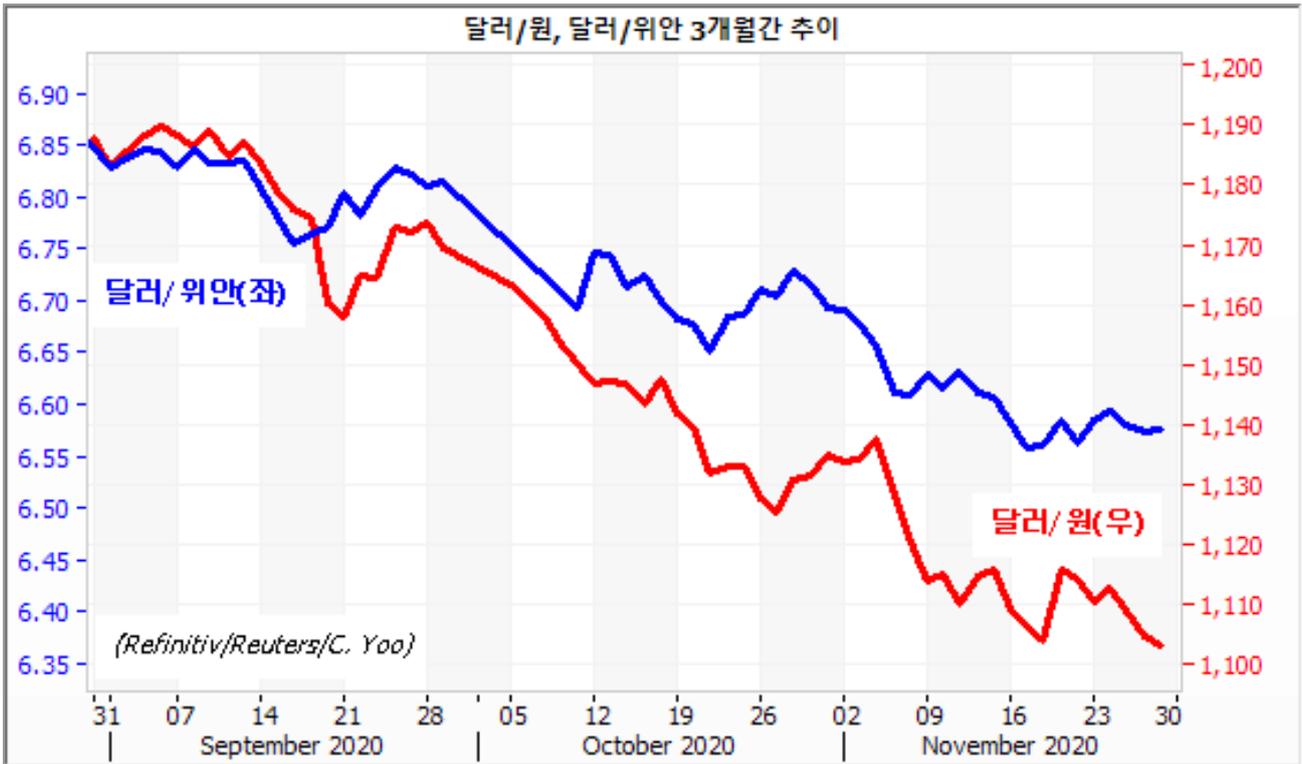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외국인 자금이 신흥시장에 한 번 유입되기 시작하면 한 두 달 안에 끝나진 않았다"면서, 변수는 "백신 개발 진전으로 경기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긴축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백신 상용화 이전에 벌써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 종료 등이 시그널이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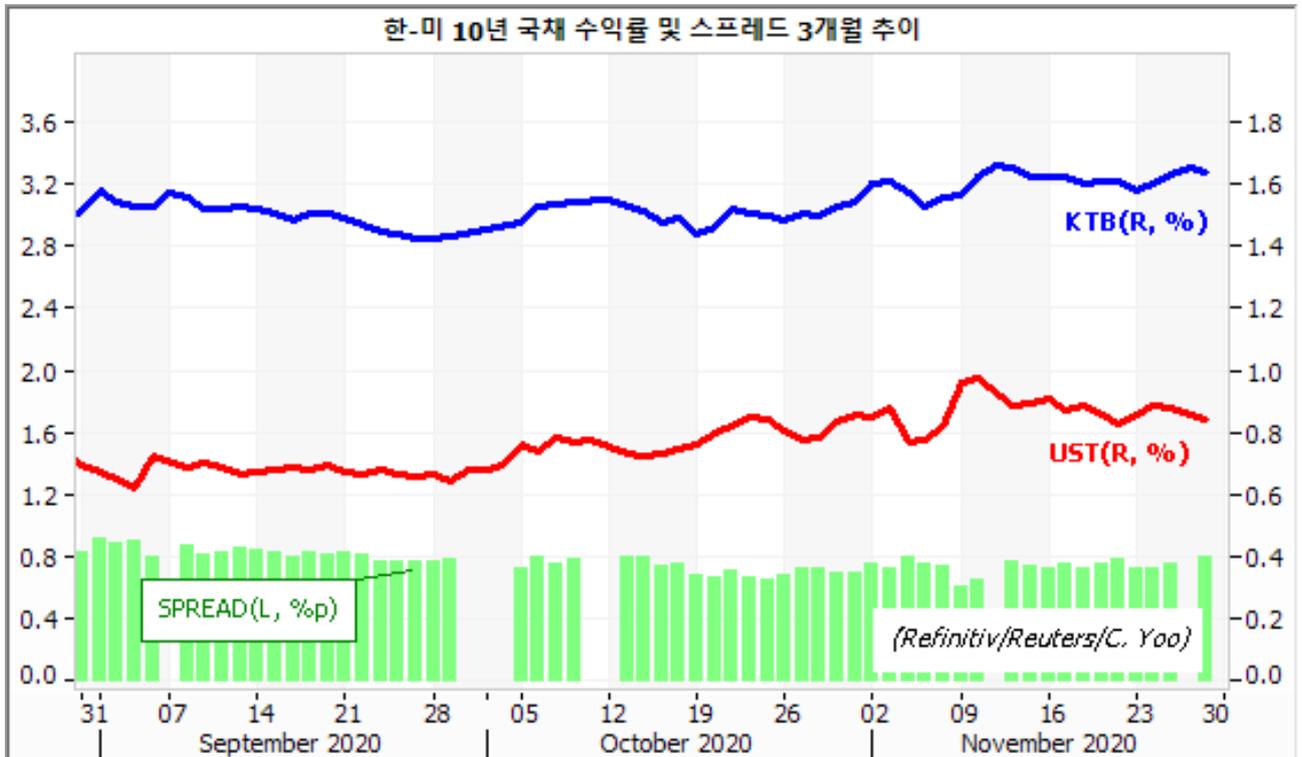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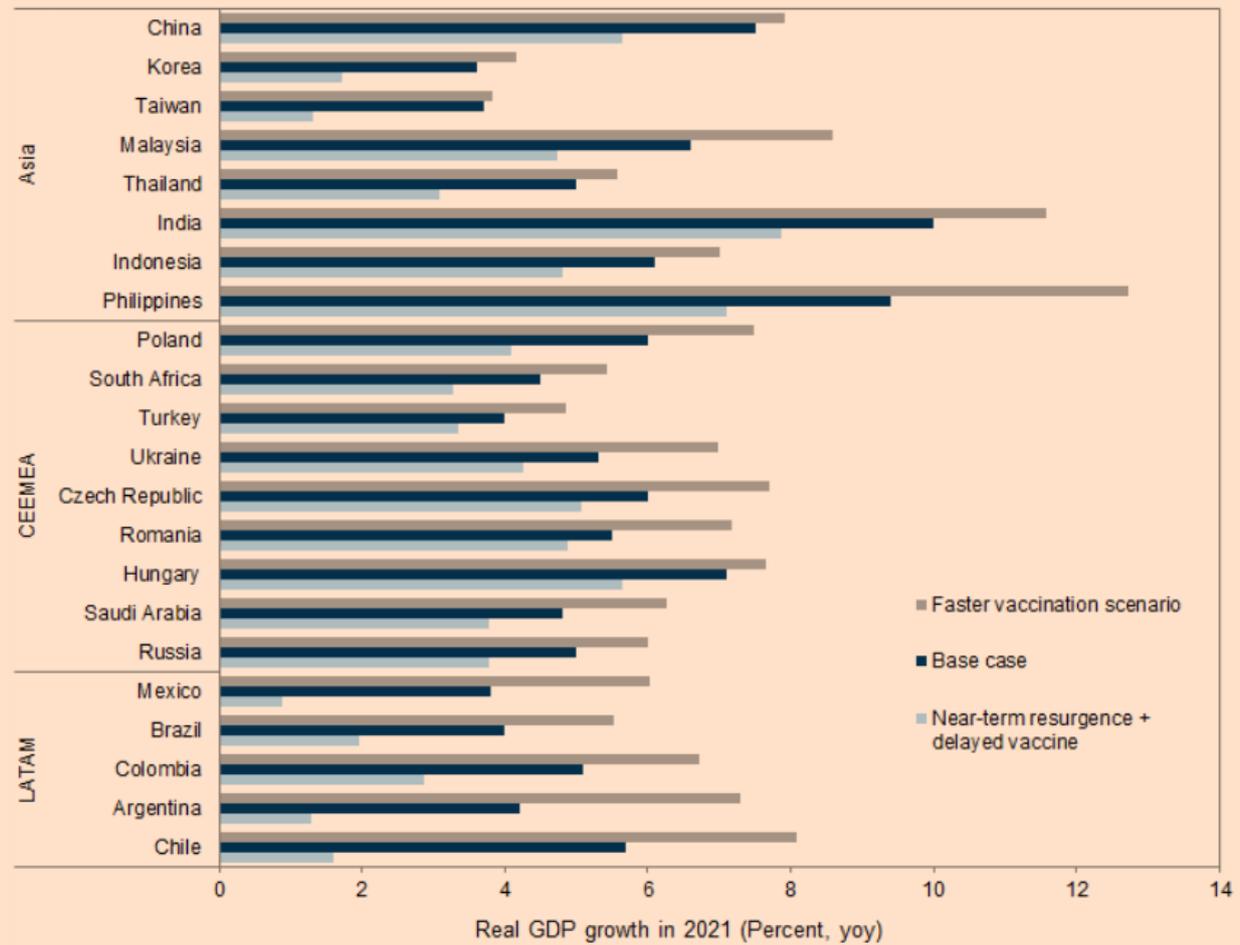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Exhibit 5: EM growth in 2021 sensitive to timing of vaccine rollout



Source: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